

# 초청강연

## 한국영화/드라마 열풍

-열정과 난폭함에 대하여

조희문 교수

상명대학교



한류, 한국영화

6월 9일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한국영화 특집 기사를 실었다. '한국영화를 보라-아시아의 헐리우드 탄생의 비밀'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쉬리> 이후 약진하고 있는 한국영화의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올드보이>를 감독한 박찬욱 감독은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들이 거둔 열풍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년 전에 국내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 연가>는 일본에서 <겨울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주연의 배우준은 '은사마 신드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조명받고 있는 중이다. 소설 '겨울연가'는 100만부 이상이 팔려 나갔고 <겨울연가> 촬영지 소개책자는 30만부, DVD타이틀도 15만부 이상이 팔려 5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으며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타고 다닌 자동차나 안경, 옷, 액세서리 같은 패션 용품들도 더불어 인기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김치나 김 등 한국식품들의 인기도 확산되는 것까지 합친다면 그 효과는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겨울 연가>는 문화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며 영상 소프트웨어의 상품성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 타이완, 베트남 등에서 불고 있는 '한류' 현상의 최근 사례다. 그 변화를 이끌며 중심에 선 것은 영화였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영화는 변화와 도약 그 자체였다. <쉬리>(1999)가 6백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흥행신기록을 세웠을 때 영화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는 한결 같이 놀랐다. 한국영화가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까지 물리치며 흥행에서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 사람도, 믿은 사람도 없을 때였다. 한국영화는 빈약한 내용, 낮은 기술수준 때문에 대중적인 지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자국 문화의 산업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화산업의 보호와 육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영화인들은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격렬하게 저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영화의 산업적 자생력은 극도로 불안했다.

그같은 상황에서 <쉬리>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한국영화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산업적 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적인 예술영화가 아니라 잘 만든 상업영화라는 점도 분명했다. 물살을 타기 시작한 한국영화의 약진은 잇따른 흥행 신기록으로 증명되었다. <공동경비구역 JSA>(2001, 감독 박찬욱)는 <쉬리>가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을 불

과 1년만에 새로 바꾸었다.<쉬리>의 선풍이 돌발적인 우연이 아닌가라며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동경비구역>의 또 다른 성공은 한국영화의 거대한 약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러나 <공동경비구역>의 신기록 또한 오래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4명의 친구가 파멸하는 과정을 그린 <친구>(2002, 감독 곽경택)는 앞의 두 영화보다 더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며 또 다시 한국영화 흥행기록을 바꾸었다. 거칠고 잔혹한 폭력이 가득한 이 영화에 대해 관객들은 다시 열광했고 한국영화 기록은 또 다시 바뀌었다. <친구>는 820만명의 관객 기록을 세웠다.

<살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는 그 기록조차 옛날 기록으로 밀어버리며, 한국영화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천만명' 관객 기록을 세운 것이다. 5년 사이에 5번의 한국영화 흥행 기록이 바뀌었다. 한국영화 흥행기록은 해마다 바뀌는 모양이 되었고 관객들은 한국영화의 새로운 에너지에 열광했다.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20% 이하로까지 떨어졌지만 일단 흥행기록이 바뀌면서 점유율은 급속하게 상승했다. 2003년에는 50%로까지 높아졌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2004년 2월의 경우는 80% 수준으로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은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고 <오아시스>를 연출한 이창동감독은 베니스 영화제에서, <사마리아>를 감독한 김기덕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각각 감독상을 받았다. 그 여운을 채 걷어내기도 전에 박찬욱 감독은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상을 수상했다. <쉬리>와 <공동경비구역 JSA>는 일본에서도 흥행선풍을 일으켰고, <엽기적인 그녀>, <짬> 같은 영화는 홍콩, 대만,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흥행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전지현, 차태현, 안재욱 같은 주연 배우들을 한류 바람을 일으킨 스타로 만들어 주었다. <조폭 마누라> <두사부일체>같은 영화들은 미국의 영화사들이 판권을 사가는 등 한국영화의 열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개봉한 <내 여자 친구를 소개 합니다>는 홍콩의 투자자가 전액 투자한 경우로,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기획투자자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우 전지현과 감독 곽재용을 상품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03년도 한국영화의 해외 판매실적이 3천만 달러(미화기준)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영화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한국영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스크린을 갖춘 복합영화관들이 경쟁하듯 생겨나고 있다. 투자 자본은 계속 영화계 주변을 맴돌며 투자대상을 찾고 있다. 상품성 있는 소재와 기획만 있다면 이를 제작으로 연결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 통제에서 경쟁으로

한국영화의 놀라운 도약과 성장, 열풍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 번째 요소는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의 한국영화가 보여주는 다양성과 역동성은 자유로운 제작과 유통, 창의성을 담아낼 수 있는 치열한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화제작이 시작된 것은 1923년부터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영화는 자유로운 제작을 하기 어려웠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선전, 홍보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까지는 정치나 사회, 문화적 이유들로 인한 통제와 규제가 계속되었다. 영화제작자들은 관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부나 권력자의 눈밖에 나서는 제대로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상황은 1985년의 영화법 개정과 함께 제작자유화,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급변했다. 정부의 통제를 받긴 했지만 외국영화 수입권 보상 등을 통해 이익을 늘리며 독과점적 보호에 안주하고 있던 영화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미국영화와 경쟁하며 스스

로의 생존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처음 겪어야 했다. 결국 영화사들은 한국영화 제작만으로 생존의 방법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화계를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새로운 각오로 영화제작에 나선 제작자들은 관객이 원하는 소재를 찾아내고, 제작기술을 높이려 애썼다. 여건은 나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부패한 경찰을 풍자한 <투캅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의 잔혹행위를 그린 <하얀 전쟁>, 미국영화에 열광하는 영화매니아의 정신적 방황을 다룬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불교 수도승의 종교적 성찰을 묘사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같은 영화들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평판을 새롭게 한 경우들로 꼽힌다. 영화제작자들의 부단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영화의 제작기술이나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쉬리>는 그같은 변화가 관객들의 신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 '새로운 한국영화'의 에너지-열정과 난폭함

최근의 한국영화 관객은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연히 한국영화는 이들의 감성과 호기심에 부응하고 있는데, 논리적 귀결보다는 시각적 감성을 강조하는 속도감, 기존의 가치를 변형하거나 부정, 전복하려는 도발성, 진지한 사색 대신 감각적인 자극을 선호하는 오락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한국인들의 기질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놀랄만한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다. 특정한 사안이나 경향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특별히 주목하게 되면 놀랄만한 에너지를 분출한다. 유행에 민감하며, 일단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그 흐름에 따르려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침착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한국영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잘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한국영화를 보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지지와 환호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쉬리>는 그같은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전주국제영화제, 광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여러 개의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여성영화제나 단편영화제 등도 자주 열린다. 유명한 영화의 촬영지는 관광 명소로 주목받기도 하는데, <쉬리>의 배경이 된 제주도의 어느 바닷가 언덕은 '쉬리 언덕'으로 불리며 관광객들의 방문지가 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에 등장했던 서해안의 어느 갈대밭, <친구>의 배경이 되었던 부산의 어느 거리, <실미도>의 배경이던 실미도 섬 등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투어 '영상단지'나 '테마파크'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영상관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쓴다. '영화 열풍'의 단면들이며

### 문제점들

현재 한국의 영화산업은 영화인들조차 놀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2003년 한해동안 영화관객은 1억명 수준을 넘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중 한국영화는 50%의 수준까지 높

아졌다. 고급스런 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 극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영화제작에 투자하려는 자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열풍이 일시적인 열정인지, 안정된 수준의 현상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영화계가 해야 할 일은 최근의 열풍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다. 20세 전후에 몰려있는 관객의 범위를 넓히고, 국내 시장의 한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일은 새로운 과제다.

그 전제로서 필요한 부분은 최근 한국영화의 힘이자 약점이기도 한 난폭한 열정을 속 깊은 진지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흥행을 이끈 영화들은 어떤 소재를 다루던 간에 거친 욕설과 폭력, 성 표현을 주로 이용한다.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는 흥행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폭력,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듯한 이념적 혼란 같은 요소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을 문화와 역사가 다른 국가의 관객들이 제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친구>의 폭력은 교본으로 삼을 정도로 <공공의 적>에서는 부모살해,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의 자의적인 폭력이 당연한 듯 등장한다. <해피엔드>나 <결혼은 미친 짓이다> <바람난 가족>같은 영화들에서 다루고 있는 성표현이나 도덕적 탈선은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시선도 드러낸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부정도 감추지 않는다. 흥행을 이끄는 주류영화들이 보여주는 난폭한 열정과 자극은 '새로운 한국영화'를 만드는 원천이지만 동시에 유통의 범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해외판매나 방송에 내보내는 경우 별도의 편집본을 만들어야 할 정도라는 것은 이들 영화의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증한다. 난폭한 열정과 자극은 일시적으로 관객을 부를 수 있지만 올가미처럼 한국영화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영화는 이러한 요소들을 한국영화만이 갖는 독특한 '표준'으로 정착시키면서 다른 문화권에도 특별한 마찰없이 수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국영화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제적인 상품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특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의 한국영화가 맞고 있는 열광은 일시적인 '도취'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에 보편성과 품격을 더하는 일은 한국영화가 해결해야할 새로운 과제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의 한국영화 열풍에 대해 도취하는 것을 경계하는 일이다. 영화산업은 기본적으로 환상을 파는 투기산업의 성격이 강하다. 쉽게 부풀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가라앉을 수도 있다. 한국영화가 국내외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이른바 몇몇 '대박' 영화들이 거둔 폭발적 인기에도 기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몇 편의 영화들이 외국에서 상영되어 흥행성과 거둔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로 단발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도 일부 국가들에 한정되고 있는 단계다. 특정한 영화들이 거둔 성과 또는 그것을 근거로 한 한국영화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상당부분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영화사, 정책적 성과를 과장해야 하는 주무 부처나 관련 기관들의 홍보, 감성적인 이야기 거리로 가공하며 독자들을 자극해야 하는 언론매체들의 선정적 보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영화의 성장은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선 것이지 만족하며 방심해도 좋을 단계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자만과 방심으로는 눈높이는 한껏 올라가고, 웬만한 자극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열정적인 관객들을 지속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기 어렵다. 오랫동안 한국영화의 적 또는 경쟁상대는 대규모 자본과 시설, 인력, 유통망을 갖춘 외국영화들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경계해야하는 때가 된 것이다.